

전남 농축수산업계 '설 특수' 누릴까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구직자 최악 취업 한파

선물한도 2배 늘어난 '개정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
수입육 늘고 불경기... 한우·굴비 농가는 기대 반 우려 반

선물한도가 2배로 늘어난 '개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설을 맞는 전남지역 농축수산업계는 설 특수 기대에 부풀어 있다. 지난해 설·추석을 모두 망친 터라 더욱 간절하다.

하지만 한우·굴비 농가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원재료 상승과 수입산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울 설에 그들도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까.

11일 전남도와 전남지역 농축수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축수산업의 선물상 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이 개정됐다.

개정 이후 첫 설을 맞는 전남지역 농축수산업계는 대체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우 농가는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다.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10만원 선물세트'도 빈약할 수 밖에 없어서다. 자칫 수입육만 배분될 우려도 있다는 우려다.

안규상 한우협회 전남지회장은 "한우 등심은 산지 축협에서 1근(600g)에 5만원이다. 1근이면 불품 없어 선물을 할 수 없다. 다행히 선물한도가 10만원으로 올라 2근을 넣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 지회장은 작년 설·추석 때보다는 매

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백화점 선물세트와 수입육의 매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에서 거래되는 한우 등심은 1근에 7만원으로, 1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수입산 고기 세트를 준비하거나 '한우+한돈 세트'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에는 원산지 규정이 없는 탓에 수입산 판매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했다.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수입산 소고기는 한우 시장의 20% 가량을 잠식했다. 한우협회는 한우 작업물(비중)이 전체 소고기 시장의 51%를 차지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32%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감소한 19%는 수입육 또는 젓소 등이 잠식했다는 설명이다.

안 지회장은 "상한액 인상 대신, 청탁금지법 선물 규제 대상에서 한우 등 특수성이 있는 농산물은 아예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광 특산품인 굴비도 설 특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기 원재료값이 크게 올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현진(63) 영광굴비협동조합 대표이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돼 다행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이"면서 "특히 조기 원재료값이 상승해 10만원짜리 상품이 빛을 볼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김민석기자 mskim@kwangju.co.kr

뉴스초점
고용률 광주 59.5·전남 60.6%
도소매업·제조업 등 고용 감소
최저임금 인상 영향 계속될 듯

광주시 북구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지난해 직원 3명을 줄여야 했다. 해고하고 싶진 않았지만 경기 악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데다, 이렇게라도 해야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은 인건비 증가로 직원을 줄이고 사업까지 접을 판"이라며 "겨우 13만원 보조금 지원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중종사자'가 각각 4만9000명, 3만1000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명 감소했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실업률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에 달했다. 2016년 실업자는 101만2000명이었

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제조업 취업자가 수가 급감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9.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해 12월 기준 1999년 10.3%를 기록한 후 가장 높았다.

한파 주말까지 맹위 광주·전남 최저기온 영하 14도까지 '뚝'

폭설과 함께 찾아온 한파가 13일까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12일 광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의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4도의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여수, 고흥, 완도, 강진, 신안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지역에서 영하 1~3도의 매우 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2일 중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찬 고기압이 지속적으로 내려와 13일까지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곡성은 영하 11도, 구례 영하 10도, 장성 영하 8도, 광주는 영하 5도로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12일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 지역인 영광, 목포, 진도, 신안 등에서 2~5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부터는 기온이 회복돼 광주는 평년 최저기온 영하 6.1도, 최고기온 1.2도 수준으로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3일까지 낮기온을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쌀쌀하겠다"면서 "가축의 동사,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눈에 갇힌 공항 1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 계류장에서 직원들이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폭설·강풍으로 인해 결항했던 제주발 등 항공편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부터 정상 운영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 2면
수완 열병합 '노란 물방울' 논란 ▶ 6면
빙속 스타 체전서 평창 리허설 ▶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움 그대로를 담은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인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Sulwhasoo